한국학과 1학년 보리소바 라디나

꿈

저는 어렸을 때 수의사가 정말 되고 싶었습니다. 저는 동물을 아주 좋아해서 다친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너무 슬퍼 적습니다. 그래서 동물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수의사가 되는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들 것 같아습니다.

그래서 다른 꿈을 찾았습니다.

저는 음악하고 춤을 추는 것을 아주
좋아합니다. 그래서 제 새로운 꿈은
춤을 추고 음악 만드는 일입니다. 저는
지금 친구들과 자주 춤을 추고 공연
을 합니다. 우리는 춤을 아주 잘 춰서
사람들이 우리의 댄스 그룹에게 집중
하고 사랑을 많이 줍니다. 이대로 저는
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
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!